

위령의 날(셋째미사)

(후렴) 주 - 님 - 은 나 의 목 -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Fine

1. 주님은 나의 목자
2. 어둠의 골짜기를
3. 원수들
4. 제 한평생

아쉬울것 없어
간다 하여
보는 앞에
모든 날

라
도
서
에

푸른 풀밭에
당신 함께 계시오니
제게
은총과 자애만이

나를 쉬게
두려울것 없
상을 차려
따르

하 시 고
나 이 다
주 시 고
리 - 니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
당신의 막대와
머리에 향유를
저는 오래

생기 돋우어 주시
지팡
발라 주시
오

고
이
니
래

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
저에게
제 술잔 넘치도록
주님 집에

이 끌 어 주 시 내
위 안 이 되 나 이 다
가 득 하 읊 니 다
사 - 오 리 - 다

D.C.